조선족 교회 방문

동포들의 문제는 안타까운 일.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간 존중의 문제이기도.

반갑습니다. 아주 반갑게 생각하는데 도와줄 힘이 적습니다. 대통령 왔으니 큰 백 생겼습니다. 그렇습니까? 이제 우리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하는 기대로 반갑습니까.

'잘 풀리면 좋고 안 되더라도 와 주는 게 어디냐, 금방 안 된다고 해도 나아지겠지, 공무원들도 신경 쓰겠지'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? 마음으로는 금세 해결하고 싶습니다. 그러나 법질서가 있고 국가 간의 주권 문제가 있어서 금방 큰 도움은 안 됩니다. 그러나 꼭 인사드리겠습니다. 많은 국민이 여러분 딱한 사정 이해하고 가슴 아파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.

그 마음이라도 전하려고 왔습니다. 변호사를 할 때 중국 동포가 한국 여성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여성과 결혼한 남성에게 국적이 허용되지 않을 때였습니다. 그래서 그 일 맡아 해 본 일이 있다 사건 맡을 때는 당연히 정부가 해 줘야 할 일입니다.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고 싶어 중국에 갔겠습니까. 독립 운동을 했던 분들의 자녀들인데 왜 안 되나 했습니다. 그래서 법무부 담당 검사 만났더니 법을 가지고 토론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밀립니다.

결국은 그 검사 자신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. 그 당시만 해도 노동자 일자리 경합이 있던 때라 어렵다 했는데 이 검사도 마음먹고 문제 풀려고 합니다. 그런데 국내만 걸린 게 아니라 중국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 문제가 생깁니다. 저는 국회로 돌아오고 그 사람은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귀화해서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했습니다. 그때부터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인도적인 문제 뿐 아니라 실제 중국동포 문제 잘 해결하면 한국과 중국의 우의도 돈돈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소중히 가꿔가야 할 자산입니다.

하지만 상대국가의 존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.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도 노력해서 조그만 틈새를 열어서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. 그 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. 국적 취득의 길이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.

대통령이 관심 갖고 노력하면 공무원도 성의를 갖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? 스스로 풀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대통령이 되도 못하니 안타깝습니다. 대통령만 되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서 안타깝지만 방향 크게 잡고 가면 길을 열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. 여러분이 바로 혜택을 받지는 못할 수 있지만 다음에 여러분 후손이나 다른 사람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선물을 줄 형편도 못되고 정부 골치 아프니까 농성 해산하라고 협상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. 국민과 제 생각을 전하면 어려워도 마음에 위로받지 않을까 싶어서 온 것입니다. 역사가 가로막고 국제 질서가 가로막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 말하고 싶었습니다. 발걸음이 안 떨어지지만 일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. 9시에 회의 있는 것을 한 시간 미뤄두고 와서 가야합니다.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려워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.